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研究展示としての新「朝鮮半島の文化」： その成果と課題

メタデータ	言語: jpn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島村, 恭則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s://doi.org/10.15021/00002232

研究展示としての新「朝鮮半島の文化」—その成果と課題—

島村恭則（国立歴史民俗博物館）

新展示を拝見し、またその際に行われた研究集会「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表象」の議論に参加して考えたことを以下に報告する。

（１） 成果

民博は研究博物館である。研究博物館における展示は、研究成果が反映された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場合、「朝鮮半島の文化」展示ではどうかというと、もちろん、十分「研究展示」となっている。

民博では、「韓国社会：高度経済成長下のフィールドワーク」と題する共同研究を行っていた（1994～95年度）。その成果は、すでに書物としては『変貌する韓国社会—一九七〇～八〇年代の人類学調査の現場から』（嶋陸奥彦・朝倉敏夫編 第一書房）としてまとめられている。ただし、その内容はどちらかといえば研究者向けのものであった。そこで、一般市民への研究成果の還元が課題となるわけだが、このたびの新展示、とりわけ「現代文化」コーナーの展示によって、この課題が克服された。「子供部屋」「キムチ冷蔵庫」「スポーツ」といった展示物はもちろんのこと、それらとセットになって用意されている電子ガイドを見れば、さらに多くの韓国の現代文化についての情報に触れ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共同研究の成果は、見事に「研究展示」として結実したといつてよいだろう。

また、「多重性」を一貫した展示コンセプトにしている点も、新しい研究成果の反映であるといえよう。従来なら、朝鮮半島の文化は<儒教—シャーマニズム二元論>で切り取られたであろうが、今回は違う。二元論を超えた「多重性」論だ。具体的には、仏教（それも、「寺」「民俗仏教」「現代の仏教」の三つ）とキリスト教が、儒教・シャーマニズムに加えて展示され、しかも単なる「多重並列」ではなく、それらの文化要素の相互関連性を語り得る／読み取り得る、ような展示配列がなされているのである。

パティオの「酒幕」も、ただの体感コーナーとしての「酒幕」ではなく、「いろいろな階層の人が集まっては散らばる」[朝倉 2000]というまさに「多重性」の結節点

研究展示로서의 새로운 「한반도의 문화」 - 그 성과와 과제 -

島村恭則 (國立歷史民俗博物館)

새로운 전시와 연구 집회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문화의 表象」의 토론에 참가하여 느낀 점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1) 성과

국립민족학박물관은 연구박물관이다. 연구박물관에 있어서의 전시는 연구성과가 반영되어야만 한다. 이 경우, 「한반도의 문화」 전시는 어떠하였는가 하면, 물론 「연구전시」라고 말할 만 하다.

국립민족학박물관에서는 「한국사회 : 고도경제 성장하의 필드워크」라는 제목의 공동연구를 행한 적이 있었다(1994~1995년). 그 성과는 이미 『변모하는 한국사회—1970~80년대 인류학 조사 현장에서』라는 출판물로서 발행되었다. 다만 그 내용은 연구자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연구성과의 일반시민에게의 환원이 과제가 되었지만, 이번의 새로운 전시, 즉 「현대문화」 코너의 전시는 이 과제를 극복하였다. 「어린이 방」, 「김치 냉장고」, 「스포츠」 등의 전시물은 물론이고 이것들과 세트로 준비된 전자기이드를 보면, 한국의 현대문화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가 있다. 공동연구의 성과는 훌륭한 「연구전시」로서 결실을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전시컨셉을 「다중성」으로 일관한 것도 새로운 연구성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예전 같으면, 한반도 문화는 <유교-샤머니즘 이원론> 이었겠지만, 이번 전시는 상이하다. 즉 이원론을 초월한 「다중성」론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교(그것도 절, 민속불교, 현대불교)와 기독교가 유교·샤머니즘과 함께 전시되고, 게다가 단순한 다중병렬이 아니라 이들 문화요소의 상호관령성을 말할 수 있는/읽어낼 수 있는 전시배열이다.

파티오의 「주막」도 단순한 체험코너로서의 주막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진다」[朝倉 2000]라는 「다중성」의 결절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전시된 것이었다. 이 「주막」등 근래의

としての意味があるからこそ展示されたのである。この「酒幕」など、近年の趨勢である「体感展示」「くつろぎコーナー」的需要を、「研究展示」として軽々と満たしてしまっているのである。いわゆる「楽しめる展示」と「研究」とを見事にドッキングさせた展示担当者の力量に感服させられる。

このほか、済州島民家模型を、日本の「南島文化」に隣接させて設置し、「海の文化」展示への可能性を切り開いたこと、さらに生産用具のコーナーを使って、「海の文化」と「山の文化」との対比も可能になるという見通しが立った[朝倉 2000]ことなど、まさに「多重性」を明確に主張しうる展示構想である。これは、これまで往々にして陥りがちであった農本主義的・稲作一元論的文化観を乗り越えうるものであるが、この構想も、着実な研究成果にもとづく広い視野がなければ不可能であったといえるだろう。

このほかにも、高い評価が与えられる工夫は、随所になされているが、紙幅の都合上、あと一点のみあげると、今回行なわれた研究集会『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表象』がまさにそれだが、展示完成後に、その展示について研究し評価する研究会がもたれたこと自体が、大きな特徴として高く評価されよう。展示したらそれで終わり、ではなく、完成した展示をめぐって十分議論がなされたことにより、「朝鮮半島の文化」展示は、次の段階へ着実に離陸したといえるだろう。

(2) 課題

次に、今後の課題を提示するが、空間、予算など種々の制約がある現時点では、無いものねだりに留まる点もある。そのことは承知の上で、今後のためには気づいたことはとにかく記録しておいたほうがいい、との判断から、以下自由に書かせていただく。どうかご寛恕いただきたい。

① 民博というと、これまで私の頭の中には、とにかく<もの>が壁面にズラーっと並んでいるというイメージがあった。このたびのリニューアルではどうか、と思って展示場に行ってみると、正直なところ、やはり壁面にズラーっと印象に変化はなかった（もちろん、壁面以外の展示、新しい工夫もたくさんあるが）。

たとえば、「子供部屋」の展示など、さまざまな「子供部屋」の<もの>は、壁面に並べるのではなく、やはり「子供部屋」自体を造作して、その中に、実際に置かれているのと同様に<もの>を配置し、観る者（とくに子供）が等身大的に「子供部屋」体感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たほうが、よほどリアリティがあるといえるだろう。

추세인 「체험전시」, 「안락한 코너」적인 수요를 「연구전시」로써 가볍게 만족시키고 있다. 소위 「즐기는 전시」와 「연구」를 훌륭히 접속시킨 전시담당자의 역량에 감동했다.

그 외에 제주도 민가 모형을 일본의 「南島文化」에 인접되게 설치하여 「바다의 문화」 전시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 게다가 생산용구 코너로써, 「바다의 문화」와 「산의 문화」의 비교도 가능케 한 점 등, 그야말로 「다중성」을 명확히 주장한 전시 구상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헤어나기 어려웠던 農本主義的·稻作一元論的 문화관을 초월한 것이지만, 이 구상도 착실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넓은 시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점은 여러 가지이나, 지면 관계상 한 가지 점만 들어보면, 이번에 열린 연구 집회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문화의 표상』이다. 그러나 전시가 끝난 후 그 전시에 관해 연구·평가하는 연구회가 있었다는 그 자체를 큰 특징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전시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 전시를 둘러보고 충분한 토론을 행함으로써 「한반도의 문화」 전시는 착실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2) 과제

다음은 금후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간, 예산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현 시점에서는 무리일 것이다. 이것을 이미 알고는 있지만, 뒷날을 위해서는 느낀 점을 기록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다음과 같이 남긴다.

① 지금까지 나의 머리 속에는 국립민족학박물관이라고 하면 〈물건〉이 벽면에 줄줄이 걸려 있는 이미지였다. 이번의 재단장(renewal)은 어떻게 하는 생각으로 전시장에 가보고 솔직히 말하면 역시 벽면에 줄줄이 걸려있다는 인상에는 변화가 없었다 (물론 벽면이외의 전시, 새로운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어린이의 방」 전시 등, 「어린이의 방」의 여러 가지 〈물건〉은 벽면에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방」 자체를 만들어 그 안에서 실제로 놓여 있는 것과 똑같이 〈물건〉을 배치하여, 관람자 (특히

体感は「酒幕」で、ということかもしれない。しかし、大人にとっては、建物としての「酒幕」は「酒幕」として体感できようが、子供にとっては、「酒幕」よりも「子供部屋」でのほうが体感はやさしいのではないかと。

「酒幕」が子供にとって体感の場になりえないというのではない。「酒幕」で子供に配慮した種々の行事が行なわれれば、体感は成功するだろう。ただし、それは酒幕「で」体感をする、ということなのであり、酒幕「を」体感する、というものではないだろう。

などといったのはみるものの、体感の場としての「子供部屋」は、空間的制約のある現時点では無いものねだりであろう。この点の克服は、将来的な課題ということになるだろう。

② 「海の文化」「山の文化」といった展示構想が現実化したときには可能になるだろうが、現時点でいえば、人と自然のかかわりについての展示、生態・環境に関わる展示が、今後取り組むべき課題の一つであるといえよう。この場合、環境展示には、現代朝鮮半島社会の抱える環境問題も当然含まれてこよう。今後、この主題の展示につながるような研究の進展が望まれるところである。

③ 今回の展示では、植民地文化と在日・在米など海外のコリアンについての展示は、先送りされた。これらのテーマは、展示構想に入っていなかったわけでは決して無く、構想当初から重視されていたものである[朝倉 2000]。ただ、<もの>資料の不足その他の事情で、今回は間に合わなかったようである。これは、今後、共同研究などを通じて展示へ向かえばよいのであり、今、そのこと自体をあげつらっても仕方が無い。

ただ、これらの問題が、大きく、かつ本質的なものであることから、こうした主題の問題が存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自体は、現時点でも、観客にもわかるようにしておく必要があると筆者は考える。

展示そのものがなくても、電子ガイドやビデオテークあるいは印刷物、または種々の企画により、植民地の問題と、在外コリアン（とりわけ「在日」）に関わる問題が存在することを観客に知らしめる必要があるのだ。今回の研究集会に参加し、展示担当者から説明を聞いた者は、これらの問題に民博が取り組もうとしている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ここに参加しなかった研究者、そして一般観客は、今のところ民博のこの姿勢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にある。したがって、たとえ展示自体はなかったとしても、問題の存在とそれへの取り組みが模索されつつあることを、何

어린이)가 「어린이의 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보다 현실감이 있을 것이다. 체험은 「주막」에서 하라는 것일까? 그러나, 어른의 경우 건물로서의 「주막」을 「주막」으로서 체험할 수 있지만,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주막보다는 「어린이의 방」에서의 체험이 보다 좋지 않았을까?

어린이에게 있어 「주막」은 체험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주막」에서 어린이를 배려한 다양한 행사가 행해진다면, 체험은 성공할 것이다. 다만, 그것은 주막 「에서」 체험한다는 것이고, 주막 「을」 체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체험의 장으로서의 「어린이의 방」은 공간적 제약이 있는 현 시점에서는 무리일 것이다. 이런 점을 극복하는 것이 장래의 과제이다.

② 「바다의 문화」, 「산의 문화」라는 전시구상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전시, 생태·환경에 관한 전시가 금후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이 경우, 환경전시에는 현대 한반도 사회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금후 이런 주제의 전시와 연관된 연구가 진전되기를 바란다.

③ 이번 전시에서는 식민지문화와 해외한인에 관한 전시는 다음으로 미루었다. 이들 테마는 전시구상에 들어 있었고 구상 초기부터 중시되었다. 다만, 자료의 부족과 그 외 사정으로 인해 이번에는 전시되지 못했다. 이것은 앞으로 공동연구 등을 통해 전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이다.

다만 이런 문제가 본질적인 것이므로, 이런 주제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현시점에서도 관객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전시 그 자체가 없어도 전자가이드 및 비디오, 혹은 인쇄물, 또한 여러 가지 기획에 의해 식민지문제와 해외한인에 관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관객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번의 연구집회에 참가하여 전시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람은 이런 문제를 국립민족학박물관이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참가하지 않은 연구자와 일반 관객은 지금으로서는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이런 자세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전시 그 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문제의 존재와 이를 해결하려는 모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마땅

らかの手段を用いて明示しておくべきなのである。

先に指摘した①と②などは、現時点では、無いものねだりにすぎない。しかし、この③の課題は、ぜひともすぐに対応してほしいと思う。

④ ギャラリートークの積極的展開も期待したい。これは、「朝鮮半島の文化」展示だけのことではないが、いくらすぐれた研究展示であっても、その展示意図を完璧に読み取ることは、一般観客にとっても研究者にとっても、難しいだろう。もちろん、自分の頭で考えることは大切だし、展示意図を想像しながら展示を見たり、多様な解釈を行なうという楽しみを否定するようなことになってはならないが、適宜、展示解説がなされることも必要だといえよう。「おんぶに抱っこ」「痒いところに手が届く」といったようなものは必要ない（そんなことをしたら逆効果）。しかし、たとえば、「多重性」という研究成果を理解するための助けになるようなギャラリートークなどはあったほうがよい。もう十分その用意はあるとは思いますが、念のため、この点を強く希望しておきたい。

また、これはおそらく館全体の問題であるので、遠い将来への課題となるのであろうが、叙上の考え方からすれば、やはり解説員（ボランティアなど）の導入も望まれるところであろう。

⑤ さきに（１）成果のところでは指摘したとおり、今回のような展示評価の実施自体が高く評価されようが、この試みは、研究者だけでなく、観客に対しても行なってほしい。すなわち、観客エバリュエーションの実施である。また、研究者による展示評価も、一回きりとせず、イベントの実績が蓄積したり、観客エバリュエーションの蓄積が一定程度なされた段階で、時宜に応じて行なうというように、評価活動の継続性が大切なのではなかろうか。

⑥ 以上、勝手な要求も含めて若干指摘を行なったが、われわれが認識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何でもかんでも揃った完璧な展示など要求するのが無理だし、その必要も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朝鮮半島展示も、固定的な常設展示の殻を破って成長しつづけ、そこにリピーターとして観客がやってくる、というようなあり方があるべき姿であろう。

また、博物館展示は、一つの展示で完結するものではなく、ネットワーク化によって分業、相互乗り入れを行なう、もっとダイナミックなものとして捉えられるべきである。だから、民博における朝鮮半島展示と歴博における「日本の歴史と文化」の展示（今はまだ無いが、日本植民地の歴史や「在日コリアン」の歴史など、歴博でこ

히 명시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①과 ②는 현 시점에서는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세번째의 과제는 꼭 빠른 시일 내에 수행해주기 바란다.

④갤러리 토크의 적극적인 전개도 기대한다. 「한반도 문화」 전시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뛰어난 연구전시라 해도 그 전시의도를 완벽하게 읽어낸다는 것은, 일반 관객도 연구자도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자신의 머리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고, 전시의도를 상상하면서 전시를 보거나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즐거움을 부정해서는 안되지만, 전시해설을 적절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려운 곳을 긁어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역효과). 그러나 예를 들어 「다중성」이라는 연구 성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갤러리 토크 등은 있는 편이 낫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만일을 위해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또한, 이것은 국립민족학박물관 전체의 문제이므로 가까운 장래의 과제가 되겠지만, 역시 해설자(자원봉사자 등)의 도입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⑤앞서 (1)성과에서 지적한대로, 이번 전시평가의 실시 그 자체는 높이 평가되지만, 이런 시도가 연구자만이 아니라 관객에 대해서도 행해지기를 바란다. 즉 관객 에버루션(evaluation)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연구자에 의한 전시평가도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실적이 축적되고 관객 에버루션(evaluation)의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단계에서 적절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 활동이 중요하다.

⑥이상과 같이 자신의 요구를 포함하여 몇 가지 지적했지만, 우리들이 인식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준비된 완벽한 전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전시도 고정적인 상설전시의 틀을 깨고 계속 성장하고 나아가 관객이 재방문객으로써 방문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박물관전시는 하나의 전시로 완결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따른 분업, 상호보조를 행하는, 보다 역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민족학박물관의 한반도 전시와 역사박물관의 「일본의 역사와 문화」의 전시(지금은 아직 없지만 일본식민지의 역사와 재일한

そ展示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私自身は考えている)とがリンクしていたり、民博とソウルの博物館、民博と濟州島の博物館、民博とロスアンゼルスのコリアン博物館とがリンクしていたり、というのが理想である(この「リンク」とは、具体的には企画展示の巡回、デジタル回線による展示場間の結合などのことだ)。

最後になってしまったが、日本の博物館において朝鮮半島関係の展示に関わる数少ない研究者の一人、朝倉敏夫氏が、今回の展示リニューアルを見事に実現されたことに対して、やはり博物館という場で朝鮮文化にも関わる研究と展示を担当する同業の後輩として、深甚の敬意を表したい。

参考文献

朝倉敏夫 2000「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表象』(国立民族学博物館重点研究プロジェクト「文化表象の博物館人類学的研究」研究集会資料集)

국인의 역사 등, 역사박물관에서야말로 전시되어져야 한다고 나 자신은 생각하고 있다)가 연계되거나 국립민족학박물관과 서울의 박물관, 국립민족학박물관과 제주도의 박물관, 국립민족학박물관과 로스앤젤레스의 한인박물관 등의 연계도 이상적일 것이다 (이런 연계는 구체적으로는 기획전시회 순회, 디지털회선에 의한 전시장간의 결합).

마지막으로 일본박물관에서의 한반도 관계의 전시에 관련된 연구자의 한 사람인 朝倉敏夫 선생이 이번 전시의 재단장을 훌륭하게 해낸 것에 대해, 역시 박물관이라는 장소에서 조선 문화와도 관련된 연구와 전시를 담당하는 후배로서 깊은 경의를 표한다.

참고문헌

朝倉敏夫 2000 「新“朝鮮半島의 文化”展示」 『日本에 있어서의 韓國文化의 表象』 (國立民族學博物館重點研究프로젝트 「文化表象의 博物館人類學的研究」 研究集會資料集)